

# '부장검사 피습' 광주지검 방호 강화 스크린도어 설치한다

'부장검사 피습사건'으로 충격에 휩싸인 광주지검에 전국 검찰청 가운데 가장 먼저 스크린도어가 설치되는 등 방호 시스템이 대폭 강화될 전망이다.

광주지검은 지난 16일 발생한 부장검사 피습사건과 관련, 임체전 검찰총장과 대검의 주문에 따라 청사 방호를 강화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검찰은 건물 안으로 통하는 출입구와 각 층에 '스크린 도어(Screen Door)'를 설치해 사건 당사자와 민원인 등의 출입을 통제할 방침이다.

스크린 도어는 애초 서울 중앙지검 등에 시범적으로 설치하고 나서 전국 검찰청사로 확대될 예정이었다. 그러나 검사 피습사건이 일어난 광주지검이 시범시행 단계에서 우선 설치를 요구할 경우 전국에서 가장 먼저 스크린 도어가 설치되는 지방검찰청이 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또 검색대를 늘려 흉기 등 급속성 무기류의 반입을 차단하고 휴대전화 소지도 엄격히 제한하기로 했다.

검찰은 또 피의자는 물론 참고인

등 모든 사건 관련자에 대한 소지품 검색을 강화하고, 반입금지 물품을 보관하는 사물함을 설치해 조사가 끝나면 찾아가도록 할 예정이다.

앞서 검찰은 '부장검사 피습사건' 이후 청사 정문 출입문 가운데 검색대가 설치된 출입문을 사용하는 등 청사 방호 수위를 높였다.

광주지검은 이와 함께 법정에서 구속 피고인들이 수감도 차이 않은 채 공판검사 뒤쪽에서 입장하고, 검사석과 피고인석이 거리가 가까워 신변 위협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어 이에 따른 대책도 법원 측과 협의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광주지검은 오는 19일 대검에서 열리는 전국 공판부장 회의에서 법정 칸막이 설치와 경비요원 확충 등을 건의할 계획이다.

광주지검 한명관 차장검사는 "우리나라 정서상 관공서 출입을 너무 엄격히 제한하면 반감을 살 수도 있겠지만 소임을 충실히 한 검사의 안전을 지키는 일도 중요하다"며 "민원인 불편과 검찰 직원 보호 측면을 모두 고려해 합리적인 범위에서 청사 방호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 부장검사 폭행 40대 구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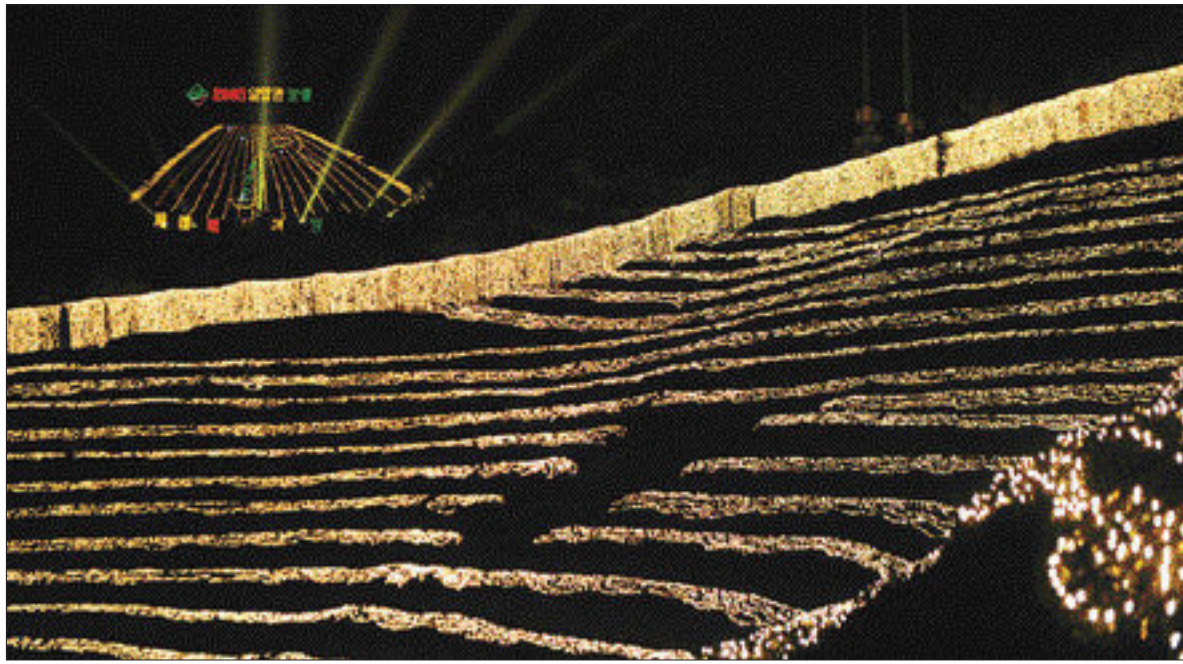
광주지검 마약·조직범죄수사부(부장검사 송삼현)는 17일 부장검사에 게 철제공구를 휘두른 한모(47)씨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흉기 상해) 혐의로 구속했다.

이날 한씨의 영장실질심사를 맡은 광주지법 유승룡 부장판사는 "한씨가 집행유예기간 중 범죄를 저질렀고

도주할 우려가 있다"며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이날 영장실질심사를 마친 한씨는 "마음이 착잡하다"는 짝막한 말만 남겼다.

한씨는 지난 16일 오전 11시에 광주지검 이모 부장검사에게 진정 처벌결과를 따지러 갔다가 이 부장검사에게 철제 공구를 휘둘러 머리와 얼굴에 진치 2~3주의 상처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 불 밝힌 보성 녹차밭 트리

크리스마스를 1주일 앞둔 17일 저녁 보성군 회천면 봇재다원 일대에 새해 소망을 기원하는 대형 트리가 불을 밝혔다. 높이 120m·폭 160m 규모의 녹차밭 트리는 50만여개의 LED 조명으로 꾸며졌다. 19일에는 대형 트리 점등식과 함께 '보성 차밭 빛의 축제'가 개막돼 내년 2월 15일까지 계속된다.

크리스마스를 1주일 앞둔 17일 저녁 보성군 회천면 봇재다원 일대에 새해 소망을 기원하는 대형 트리가 불을 밝혔다. 높이 120m·폭 160m 규모의 녹차밭 트리는 50만여개의 LED 조명으로 꾸며졌다. 19일에는 대형 트리 점등식과 함께 '보성 차밭 빛의 축제'가 개막돼 내년 2월 15일까지 계속된다.

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 숨방망이 처벌이 꼴찌 불렀다

## 광주시교육청 청렴도 전국 최하위 '당혹'

광주교육청은 청렴도 평가 결과 전국 16개 시·도교육청 중 꼴찌를 기록한데 대해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다. 시교육청의 종합청렴도 지수 7.04점(10점 만점)은 17일 국민권익위원회가 종합청렴도를 조사·발표한 전국 167개 기관 중에서 무안군 다음으로 낮은 최하위권이다.

특히 안순일 교육감이 취임 이후 시교육청의 슬로건을 '청렴 으뜸, 실력 으뜸'이라고 정할 정도로 청렴도 제고를 강조해왔기 때문에 더욱 충격을 주고 있다.

시교육청의 내부청렴도는 8.55점으로 16개 시·도교육청 중 7위로 중간 수준을 유지했지만, 외부 청렴도 지표 중 하나인 부패지수는 5.06점이었다.

민원인 등 외부에서 바라보는 시교육청의 부패정도가 심하다는 것을 반영하는 수치다. 시교육청이 지난 8월 2006년에 비해 2007년 청렴도가 13위에서 11위로 2단계 상승했다는 것을 알리기 위해 교육감 명의의 서한문 30만부를 제작해 학부모와 급식·수학여행 업체에 보낸 점을 감안하면 부끄러울 정도다.

시교육청의 청렴도가 이처럼 낮은 것은 청렴 시책이 상급기관에서 맴돌 뿐 현장에는 미치지 못하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청렴도와 밀접한 각종 비리나 지적사항에 대해

■전국 16개 시·도교육청 중 광주·전남 청렴도 순위

연도	광주시교육청	전남도교육청
2008년	16위(7.04)	10위(7.46)
2007년	11위(8.23)	13위(8.01)
2006년	13위(8.22)	2위(9.04)
2005년	9위(8.68)	6위(8.73)

(자료: 인은 종합청렴도 지수)

시교육청의 부패정도가 심하다는 것을 반영하는 수치다.

시교육청이 지난 8월 2006년에 비해 2007년 청렴도가 13위에서 11위로 2단계 상승했다는 것을 알리기 위해 교육감 명의의 서한문 30만부를 제작해 학부모와 급식·수학여행 업체에 보낸 점을 감안하면 부끄러울 정도다.

시교육청의 청렴도가 이처럼 낮은 것은 청렴 시책이 상급기관에서 맴돌 뿐 현장에는 미치지 못하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청렴도와 밀접한 각종 비리나 지적사항에 대해

숨방망이 처벌이 그친 것도 낮은 청렴도의 한 이유로 풀이된다.

지난 9월 열린 시교육청 행정사무감사에서 ▲시설공사 업자 선정의 부적절 ▲부당한 수의계약 ▲부적절한 수학여행·수련활동 집행 ▲급식업체 선정·급식비 집행 부적절 사례 등이 무더기 적발됐지만 대부분 주의나 경고에 그쳤다.

일례로, 수학여행 위탁업체 선정의 경우 일반경쟁 입찰 대상이지만 수습계 학교에서 수의계약을 체결했다가 행정사무감사에 지적됐다. 문제는 감사 후에도 지적사항이 개선되지 않고 되풀이된다는 점이다.

전교조 광주지부 관계자는 "청렴 거울 제작, 청렴서약서 등 전시 행정이거나 이미지 행정으로 일관한 결과가 아닌가 생각한다"고 말했다. 정상필기자 camus@kwangju.co.kr

## "경찰 수사 불만" 여수 50대 목 매

여수에서 50대 가장이 경찰의 수사 과정에 불만을 품은 내용의 유서를 남기고 스스로 목숨을 끊어 파문이 일고 있다.

지난 16일 오후 2시10분께 여수시 신월동 K아파트에서 한모(52)씨가 안방 침대 모서리에 목을 매고 숨져

있는 것을 한씨의 아들(24)이 발견,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안방에서 한씨가 남긴 유서가 발견된 점 등으로 미뤄 한씨가 신변을 비판해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으로 보고 사망원인을 조사중이다. 한씨가 남긴 유서에는 "경찰 수사

에 불만이 많다. 몸이 아파서 치료를 받은 것인데, 억울하다. 대한민국이 싫다" 등의 경찰 수사에 대한 불만을 담은 것으로 알려졌다.

한씨와 한씨 친인척 등 4명은 지난 7월부터 보험사기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았고, 현재 한씨와 관련된 사건은 검찰로 송치돼 있는 상태다.

한편, 여수경찰은 지난 7월부터 보험사기와 관련해 대대적인 수사를 벌여왔다. 김형호기자 khh@

## 아파트 주차장서 부녀자 납치 강도

40대 부녀자가 아파트 주차장에서 납치된 뒤 7시간 가량 승용차에 갇혀 있었다가 풀려난 사건이 발생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17일 순천경찰에 따르면 지난 16일 새벽 3시께 순천시 모 아파트 주차장에서 승용차를 타고 귀가하던 A(여·48)씨를 20대로 보이는 남성 2명이 흉기로 위협한 뒤 신용카드 등을 빼앗았다.

이들은 이어 A씨를 승용차 뒷좌석에 태우고 순천시내를 돌아다니다가 이날 오전 10시께 순천시 매곡동 모 웨딩홀 앞에 차를 세운 뒤 달아났다.

경찰은 범인들이 A씨에게서 뺏은 2~3개의 신용카드 모 금융기관 현금출금기에서 현금 500만원을 찾은 사실을 확인하고 금융기관에 설치된 CCTV를 통해 신원 확인을 받고 있다. 동부취재본부=김은종기자 ejkim@

## 아내 폭행치사 40대 검거

영광경찰서는 17일 자신의 부인을 폭행해 숨지게 한 윤모(45)씨를 폭행치사 혐의로 긴급체포했다.

윤씨는 지난 13일 오전 6시께 영광군 자신의 집에서 잠자던 부인 A(36)씨를 수차례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윤씨는 "아내가 알코올 중독으로 사망했다"고 진술했지만, 이를 수상히 여긴 경찰이 부검을 통해 장간막 괴혈로 사망한 사실을 확인하고 검거했다. 영광=조익성기자 ischo@

## 무안 70대 포대 속에 숨진 채 발견

70대 노인의 시신이 농업용 PP(Polypropylene)포대 속에 발견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17일 오후 3시10분께 무안군 일로읍에 사는 김모(70)씨가 자신의 집 축사에서 숨겨 있는 것을 이웃 주민

P씨가 발견, 경찰에 신고했다.

P씨는 경찰에서 "김장김치를 주려고 김치 집을 찾았으나 보이지 않아 집 주변을 돌아보면 중 축사에 사람 형태로 추정되는 PP포대가 보여 가봤더니 김치가 숨겨져 있었다"고 진술

했다.

발견 당시 김씨는 머리 부분이 바닥을 향한 채 팔·다리 등을 감는 농업용 PP포대 속에 담겨 있었다.

특히 김씨의 머리에서는 둔기에 맞은 것으로 보이는 흔적이 발견됐다. 기초수급대상자인 김씨는 수년 전부터 홀로 생활해왔던 것으로 알려졌다. 무안=대성수기자 dss@

## 나원침 (7681) 김장독



다 좋은 건축·산업재 KCC

(주) 금복시스템

개인주택, 아파트 발코니

신규사시 제작 및 상담관행

▶ 서울본사 : 02) 3445-0943

▶ 광주광역시 : 06) 337-0571



정역형 목소리 "물의 일으켜 죄송"

## 상나팔

○간통 혐의로 기소된 탤런트 목소리(40·사진)씨에게 17일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

○의정부지법 교양지원 조민석 판사는 이날 재판에서 "목씨의 간통 사실이 인정된다"면서도 "목씨 부부의 신뢰관계가 훼손된 데다 가정생활에 소홀한 고소인의 책임도 적지 않은 점, 사생활이 노출돼 정신적 고통을 받은 점 등을 참작한다"고 양형 배정을 설명했다.

○목소리는 재판이 끝난 뒤 "(이번 판결을) 모두 받아들인다.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켜 죄송하다"고 짝막하게 답변. 연합뉴스

'좋은 보청기를 쓰십시오' 난청이 사라지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국제보청기

본점 (062) 227-9940

총장점 (062) 227-9970

2009년 편입학공성

그동안 편입합격생 12만 천여명을 배출한 "김영배대학편입"

내학편입

최종마무리반 모집

개강 12월 1일 첫진도

김영배 대학편입학원